

(0733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농협재단빌딩 10층 대표전화 02)368-3600 팩스 02)368-3700

문서번호	NHA2606-246
시행일자	2026-06-24
수신	수신처 참조
발신	NH-Amundi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
제목	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및 변경내역

펀드명	변경내역	약관 변경
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투자신탁(H)[주식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최대손실예상액) 변경사항 반영 (42.04% → 35.14%, 2등급 유지)	-
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투자신탁(UH)[주식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최대손실예상액) 변경사항 반영 (39.96% → 36.73%, 2등급 유지)	-
NH-Amundi 코리아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최대손실예상액) 변경사항 반영 (78.94% → 106.09%, 1등급 유지)	-
NH-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투자신탁(H)[주식-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	-
NH-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투자신탁(UH)[주식-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	-
NH-Amundi 코리아 차이나 울스타 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최대손실예상액) 변경사항 반영 33.49% → 32.19%, 2등급 유지)	-
NH-Amundi e-프리미어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[주식-파생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최대손실예상액) 변경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39.03% → 54.80%, 2등급 → 1등급)	-
NH-Amundi Signature OCIO 성장형 증권투자신탁(H)[혼합-재간접형]	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VaR 기준 19.91%, 2등급 → 4등급)	-
NH-Amundi Signature OCIO 성장형 증권투자신탁(UH)[혼합-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VaR 기준 24.45%, 2등급 → 3등급)	-
NH-Amundi Signature OCIO 혼합형 증권투자신탁(H)[혼합-재간접형]	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VaR 기준 16.68%, 3등급 → 4등급)	-
NH-Amundi Signature OCIO 안정형 증권투자신탁(UH)[혼합-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VaR 기준 21.61%, 4등급 → 3등급)	-
NH-Amundi Signature OCIO 인컴형 증권투자신탁(H)[혼합-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(VaR 기준 11.62%, 3등급 → 4등급)	-

나. 효력발생일 : 2026년 06월 24일 (수)

다. 업무 참고사항

- 수시공시 필요

① 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게 이메일 송부 ③ 영업점 게시

※ 잔고 유무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판매등록 된 판매사에 한하여 안내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NH-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



수신처:

NH농협은행, NH선물, NH투자증권, DB증권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iM뱅크, iM증권, KB국민은행, KB증권, KDB산업은행, LS증권, SC제일은행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다올투자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수협은행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카카오페이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